

관계 원리로서의 인접성 탐구*

- 최근 한국 시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청우**

— 목 차 —

1. 서론
2. 물리적 원근(遠近)과 마음의 원근
3. 메타적 글쓰기를 통한 헤테로토피아 구축과 관계의 윤리학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족’, 즉 ‘무목적적 모둠’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러한 모듬을 이루는 관계의 면면에 ‘인접성’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최근 시인들의 시 텍스트를 살펴보았다. 인접성은 ‘가까움’과 그 정도를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공간’의 문제를 포함한다. 흔히 ‘관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사랑’, ‘관심’, ‘친(親)함’, ‘정(情)’ 등은 공간적인 가까움/멀의 원리가 작용하는 문제다. 인접성은 또한 ‘연결’과 ‘접속’과도 관련된다. 존재는 근본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같이 물리적 공간을 함께 점유하는 접촉이 없는 관계 맺음은 형이상학적 자이를 강화할 뿐,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는 유토피아를 끊임없이 실제화하려는 시도에서 헤테로토피아가 억압되고, 그럼으로써 존재의 면모가 단순화되어 일방적 관계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맥락에 저항하는 주체는 ‘살’의 감각에 민감해지는데, 이는 직접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량을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감정이입과

*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공감, 그리고 이질성애의 직관 등이 더 잘 이루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더 나아가 윤리성까지도 담보하는 태도가 되기도 하기에, 결론적으로 인접성의 확보는 관계 맺음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어디까지나 메타적인 언어의 사용이 동반된 주체의 참여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때 이른바 서사가 창안되고 그로써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하여, 결과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함께 삶'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가족, 관계, 인접성, 공간, 신체, 공감, 헤테로토피아

1. 서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 맺음이 실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족'이라고 불리는 관계는 매우 문제적이다. 지금까지 '가족'은 어떤 실체를 가진 것(특히 혈연)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범주가 끊임없이 변해왔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열린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그렇기에 한 개인은 지속적으로 모종의 '모둠'을 형성하려고 한다. 요즘 자주 접하게 되는 '혼자가 편하다'라는 말도, '경험된' 모둠이 개인의 행복과 자유, 욕망에의 추구를 저해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지, 결코 모든 형태의 모둠이 불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 어떤 형태의 모둠을 만들거나 속하더라도 거기에 '가족'이라는 말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가족'은 개인이 속하게 되는 '최초'의 모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관계'에 있어 지향하는 바를 내포 혹은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은 문제적인 개념이며, 그런 점에서 '가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한 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적어도 현대에 이르러서 '가족'이란 "함께 있기 위해 함께 있음"¹⁾을 충족하려는 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족’은 ‘관계’의 지향점이 된다. 기본적으로 가족이란 ‘생존’(재생산 포함)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모듬이라고 할 수 있다. 물질적 자원의 확보가 절실했던 전통적 형태의 가족은 전자를 강조했다면,²⁾ 그렇지 않은 지금의 가족은 후자(‘육구’와는 구별됨)를 강조한다. 물론 욕망에의 충족은 인간 삶의 근본적 구조이므로, 과거라고 해서 추구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 가족의 실제적 구성에서 개인적 욕망에의 추구는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다른 형태의 관계-모듬을 통해 추구될 성격의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지금의 가족 구성이 지향하는 바와는 분명히 다르다.

다시 말해 지금의 ‘가족’이라는 개념의 운용 양상을 살펴볼 때, 그것은 여타의 모듬이 관심을 두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이른바 ‘무목적적’ 모듬에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 담론의 심화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보다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³⁾ 개개인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상호 동반자가 되려는 과정에서, 자신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가 될 때 서로의 ‘믿음’ 또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가족 구성에서도 이와 같은 욕망이 내재해 있음은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다. 전통적 형태의 가족이 비록 우연적(혈연)이고 이데올로기적(인구·경제적 재생산 목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편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같은 무목적적인 관계 맺음의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1) 박준상, 『텔림과 열림-몸·음악·언어에 대한 시론』, 자음과모음, 2015, 179면.
 - 2) 이는 한편으로 근대 국가가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산과 재생산의 최소 단위로서의 가족’이라는 규정과, 그러한 가족과 프랙탈(fractal) 구조로 생각되는 공동체가 바로 근대 국가의 구상이다.
 - 3) 한국은 1997년 IMF체제 이후 그때까지의 가족·가정이 해체되고 점차 ‘가족’의 개념과 범주가 다양해져왔다. 그때까지 개인은 어디까지나 가족과 가정에 귀속되어 그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았으나, IMF로 인해 해체되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나의 삶에 의한, 나의 삶을 위한 가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기존에 구성원들을 묶어주었던 (민족이나 종교와 같은) ‘공통적인 것’이 해체되었다는 점도 작용한다.

본고는 관계의 면면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인접성’의 기제를 밝히며, 더 나아가 앞서 말한 ‘가족’, 즉 우리가 지향하는 ‘무목적적 모듬’이 실현되는 데 왜 인접성이 특히 더 중요한 조건인가도 밝히고자 한다. 인접성은 일차적으로 ‘가까움’과 그 정도를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공간’의 문제를 포함한다. 흔히 ‘관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사랑’, ‘관심’, ‘친(親)함’, ‘정(情)’ 등은 한편으로 인접성의 문제, 다시 말해 공간적인 가까움/넓의 원리가 작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⁴⁾ 존재는 실체(substance)가 아니며, 따라서 존재의 의미 역시 근본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결정된다. 문장에서 주어의 양태가 어떤 술어와 함께 등장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는 누군가(혹은 사물)와 어떻게 연결·접속하는가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인접성은 이러한 ‘연결’, ‘접속’과 관련된다.

2. 물리적 원근(遠近)과 마음의 원근

사람의 관계에서 인접성을 논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마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인접은 심리적 인접과 긴밀히 연관된다. 다소 도식적이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다.

4) ‘혈연’을 천부(天賦)로 생각하여 공간적으로 함께 살지 않는 친척도 같은 ‘가족’의 범주에 묶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함께 사는’ 구성원과 그 친척이 결코 똑같은 의미와 심리적 거리를 가질 수는 없다.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이 ‘가족’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함께 사는 형태의 가족을 원형(prototype)으로 삼은 고도의 은유적 투사(metaphorical projection)의 결과일 뿐이다.

〈표 1〉 물리적 인접과 심리적 인접의 관계

유형	물리적	심리적
㉠	가까움 ●●●●●●●●●●●●●●	가까움
㉡	멀 ●●●●●●●●●●●●●●	가까움
㉢	가까움 ●●●●●●●●●●●●●●	멀
㉣	멀 ●●●●●●●●●●●●●●	멀

여기서 원근의 기준은 개인 주체다. ㉠은 ㉡에 반대되는 경우인 동시에 다른 경우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논리적 요청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나머지 3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들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서사(narrative)’다. 구체적인 상황과 이야기가 물리적인 가까움을 심리적인 가까움으로 만들기도, 또 물리적인 멀을 심리적인 가까움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심리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비례한다.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될 때, 실제 획득 가능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점차 적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에는 ‘자기 자신’이나,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 사는 (혹은 공통 목적으로 한 공간에 모인) 모듬 구성원의 관계 등이, ㉡에는 멀리 사는 친척이나 친구, 그리고 가상공간(인터넷) 상의 친구 등이, ㉢에는 도시의 거리나 카페, 광장과 같은 장소에서 (목적 없이) 마주치는 관계 등이 해당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다. 위에서 언급한 전제에 따르면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심리적으로 가까운’-‘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과는 정반대인-상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 해당하는 사례로는 특히 가상 공간에서의 친교가 주로 거론된다. 다시 말해 ‘심리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비례한다’는 견해는 기술진보를 염두에 둔 특정 입장, 즉 현재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국면이나, 더 나아가서는 실제 대면하는 상황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와 동일한 정보량을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가상공간을 상정한 입장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를 통한 가상공간의 최적화된 구축에서 점차 많은 수의 커뮤니티가 보다 덜 로컬화(localization)되고 있음을 그 증거로 삼는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는 다음과 같은 가상공간의 특성(혹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데 따른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가상공간에는 바로 ‘살’을 통해 감지되고 소통되는 ‘느낌’의 영역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 있다. 여기에는, 단지 현 시점에서 정보의 생성과 전달 체계가 실체를 대체할 만큼 정교화되지 않았을 뿐이며, 따라서 그러한 체계가 구축되면—4차 산업혁명이나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 전망하는 미래상처럼—상황은 달라질 것이라 전망하는 입장이 대립된다.⁵⁾ 그러나 이는 둘째, 가상공간의 구축에는 막대한 자원과 기술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본의 순환’에 정향(orientation)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비판될 수 있다. 즉 현실은 특정한 방향성을 띠고 기획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공존하는 ‘전체’인 반면, 가상공간은 자본의 순환을 극대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철저하게 욕망의 ‘개발과 증족’이라는 기제를 통해 기획된 ‘부분’인 것이다.⁶⁾ 따라서 가상공간은 현실을 결코 ‘대체’할 수 없으며, 그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또 다른’ 세계(일종의 ‘자각몽’으로서의 환상세계)일 뿐이다. 그 안에서 자원의 분배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

인터넷은 의식과 몸의 분리를 과격하게 추진한다. 한 사람이 인터넷에 매달리게 되는 데에 따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식에 종속되어 ‘간히지만’, 그의 몸은 세계로부터, 사물들과 타인들로부터 떨어져 나온다.⁷⁾

5) 이종관, 『공간의 현상학, 풍경 그리고 건축』,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25면 이하 참조. 이종관 역시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트랜스휴머니즘과 학문 간 융합의 흐름을 두고, 그것이 전제하는 탈신체·탈공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6) “이렇게 되는 것은, 기호자본주의가 사람들의 인지능력 그 자체를 전체로서 구매하여 노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 감수성, 주의력, 소통능력의 파편을 구매하여 그것들을 접속망 속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즉 자동장치인 접속망이 강력한 유기체가 되고, 산 노동(living labour)은 세포화되어 부품으로 기능할 뿐이기 때문이다.”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갈무리, 2015, 171면.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받는 지배적인 자극은 눈과 머리의 자극, 즉 이미지와 관념의 자극이다. 인터넷에서 배제되는 것은 몸의 감응이고, 인터넷을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감각은 가장 멀리 있는 사물까지 감지하는 원격 감각인 시각이다. 앞에 놓여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이미 분석하고 분류하며 판단하고 있는, 한마디로 관념화하는 동시에 대상화하는 가장 지성적인 감각인 시각, 이미 인식하고 사고하고 있는 시각, 몸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시에 의식에는 가장 가까운 감각인 시각, 그 의식의 감각 또는 감각의 의식이 인터넷을 지배한다.⁸⁾

박준상에 의하면, 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은 ‘연결’과 ‘접속’을 표방하는 인터넷은 기실 “원격 감각인 시각”(“눈과 머리의 자극”)만을 활성화함으로써 오히려 형이상학적 주체, 즉 타자에 대한 끊임없는 대상화를 행하는 관조(觀照)의 주체를 완성하며, 결국 인간을 서로 ‘떨어뜨리고 고립’시킨다.⁹⁾ 설령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서로 친밀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상대방을 (신체를 통해) 온전히 경험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유사성(혹은 공통성) 발견에 의한 것이므로 실상 그 유대란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대상화하는 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¹⁰⁾ 그 경우, 친밀한 느낌은 투사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그와 반대 경우, 즉 몸이 가깝다고 해서 마음 또한 ‘무조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인접이 없이 마음이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것도

7) 박준상, 『인터넷 문화와 타인과의 관계』, 『초개인화시대, 가능한 공동체와 한국 비평담론의 성찰 - 2019년도 한국비평문화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019. 11. 22.), 85면.

8) 위의 글, 88면.

9) 이 점에서 인터넷은 텔레비전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tele-vision’은 ‘먼 곳’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더 문제인 것은, 웹2.0 이후, 인터넷은 ‘실시간 소통-반응’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엇인가 상호성의 경험을 하는 것처럼(기실은 아니지만)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정작 그러한 소통은 결코 자신과 똑같이 피와 살, 그리고 감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것과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10) 이때 ‘대상화’는 인간을 ‘사물화’한다는 의미에서의 대상화하기보다, 자신과 동등한 능동적 주체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정하기는 어렵다.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량을 소통하며, 따라서 그만큼 자신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거나 감정이입, 공감 등이 이루어질 기회를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는 크게 지각, 기억,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지각’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서 주체가 세계를 받아들이는 일차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관계 형성 국면의 기제를 유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 ‘지각’이란 단순히 눈(시각)이나 귀(청각) 등 수용기와 그 자극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애초에 ‘지각’은 그러한 자극에 국한될 수도 없는데, ‘지각’은 어디까지나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¹⁾ (행동 차원의 수행에 의한) 지각은 기능상 기억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지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¹²⁾ 즉, 다양한 방면의 지각이 활성화될수록 그러한 지평은 더 심화·확장될 텐데, 가상공간은 특정한 수용기의 자극, 특히 시각-행동만을 반복·강화하기 때문에 주체의 삶이 매우 협소해지는 동시에 정신의 절대화(형이상학적 주체)가 야기되는 것이다.¹³⁾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살(flesh)’, 즉 ‘온몸’의 감각(특히 촉각)에 민감해진다.

딸기밭을 걷고 있어/ 자박자박 네계로 가는 길이야/ 네계선 절망적인 맛이 나
는구나/ 11월의 모든 날은 너를 위한 거야/ 그러니 날 마음껏 다뤄 줘/ 고양이처럼
내 쇠골을 핥아 주면 좋겠어/ 까끌까끌한 네 혀에선 핏빛이 돌겠지// 한번

11) 흔히 “시각은 망막과 뇌 안에 있는 구조들의 현상”이라고 가정되는 바와 달리, 시각을 비롯한 감각에는 필연적으로 신체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보는 일에는 눈과 머리와 몸의 움직임이 따른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이나 머리카 몸의 움직임이 눈에 대한 감각 자극에 능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자면, 사물이 미묘하고 세밀한 여러 면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알바 노에, 『뇌과학의 함정』, 김미선 역, 갤리온, 2009, 104~105면.

12) 브루스 폴드스타인, 『인지심리학』, 도경수 외 역, 센케이저러닝코리아, 2016, 64면 이하 참조.

13) 에슐리 몬터규, 『터칭』, 최로미 역, 글항아리, 2017, 49면 참조. 몬터규는 감각 자극이 종합적으로 입력되지 않으면 뇌의 작동 방식 역시 그만큼 제한된다고 말한다.

으께진 마음은 언제쯤 나올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나를 설득할 수가
 없어/ 그래도 네게선 딸기향이 나/ 세상이 조금 더 우울해지고 있는데도/ 너는
 맛있고 맛있고 맛있어/ 심장이 뛰어/ 어느 날 내가 숨을 쉬지 못하면/ 얽힌
 키스를 하면 돼/ 맛있겠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 너는 미소 짓는 법을 다
 시 배워야겠구나/ 푸른 박쥐처럼 날고 싶어/ 밤이 오면 나방 떼처럼 아무 곳이나
 쏘다니겠지/ 온몸에 멍이 들고, 눈물로 얼룩진 발목/ 쓰다듬어 줄래?/ 관자놀이
 밑을, 턱 선을, 감은 눈을/ 그러니 날 마음껏 다뤄 줘/ 나는 늘 아파/ 아파

- 김하늘, 「나는 늘 아파」 전문¹⁴⁾

위의 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날 마음껏 다뤄 줘”, “나는 늘 아파”라는 구절이다. 화자는 “한번 으께진 마음”을 지닌,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다. 이때 ‘상처’는 특별하고 특수한 사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위 ‘정신적 외상(trauma)’은 자궁으로부터의 분리-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와 2차적인 상상계적 관계(엄마-아이)가 상징계적 관계로 이행하는 데 따른 분리, 그리고 기호 사용에 있어서 ‘기표/기의’의 분리-이는 삶이 오인(誤認)의 연속인 이유다-등, 실로 삶에 근본적이다. “궁금한 게 너무 많”다는 것, 세계에 대한 ‘이해’를 욕망하지 않는 한, 그러한 ‘분리’에 의한 외상은 인간에게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¹⁵⁾ “온몸에 멍이 들고” 발목이 “눈물로 얼룩”져도, “밤이 오면 나방 떼처럼 아무 곳이나 쏘다니”는 것은 삶(외상에의 극복)을

14) 김하늘, 『삼도마토』, 파란, 2016, 24~25면.

15)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싶다는 것은 그것이 자명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박준상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을 관념에 종속시키고 더 나아가 절대적 원형의 노예로 만들어 전도된 상태에 몰아넣는, 개념들의 전체로서의 언어 자체, 인간은 오직 언어로 인해서만 자연-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의식적 개체가 된다. 언어가 악의 궁극적 근원, 가장 근원적인 악이다. 따라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보다 정확히 말해 언어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원죄이다.” 박준상, 『떨림과 열림』, 76면. 문제는 그도 인정하듯이, “언어가 인간의 창조력의 근원”이자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무기”라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라캉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의 이행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요한 바 있다.

위해 세계에 대한 해석, 인간에의 기대 등을 결코 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할 방법은 여전히 “네게로 가는 길”을 걷는 것, 그리하여 “딸기향이 나”는 그의 냄새를 맡고, 또 그런 그에게 “쓰다듬어” 달라고, “마음껏 다뤄” 달라고 함으로써 그 상처를 드러내는 방법뿐이다.

직접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량을 소통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의 경우, 즉 도시의 거리나 카페, 광장과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관계일 경우 오히려 불안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문제는 ‘우연성’이다. 사후(事後)적으로 서사가 형성된다면 그만큼 불안감은 다소 누그러지거나 일정 부분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것처럼 불안한 감정에 자주 휩싸이는 것은, 자신의 ‘내면’, 즉 공유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적인 면모를 부지불식간에 (‘심리적으로는’) 떨지만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타인에게 내보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현대 한국의 도시는 1960년대 압축적 근대화·산업화에 의해 30년도 채 안 되어, 즉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80%의 도시화율을 나타낼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특히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 지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빠르게 밀집하였으며 이에 요구된 여러 가지 기능들 또한 그에 준하는 속도로 밀집·증가하게 되었다.¹⁶⁾ 이렇게 형성된 도시에는 다양한 직종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화폐를 매개로 상호 연결되어 이질적이면서도 이해타산적인 근대적 인간관계를 형성”¹⁷⁾함으로써 도시의 ‘다공성(多孔性)’에 일조한다. 외부로는 무한히 열려 있게 되고 내부로는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도시의 도처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우(遭遇)하고 다시 헤어지길 반복하지만, 그러한 반복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수단화하는) ‘화폐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며, 또 한편으로 생산-소비의 빠

16) 전종환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개정3판), 사회평론, 2018(초판: 2005), 369면.

17) 위의 책, 374면.

른 회전과도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관계에서의 서사의 형성은 계속적으로 지연, 유사성과 이질성에의 민감도 상승과 불신에 의한 불안감 상승을 야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내 음성은 거리에서 뭉개졌다. 외국인이 많은 변화가에서 당신은 나를 버려두고 떠났다. 나는 색이 다른 인간이 무섭다. 도사견보다, 삶보다, 증기기관차보다, 나를 부르는 낮은 목소리보다 더.// 도처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른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기를 바라며 걸음의 볼륨을 높인다. 두 발로 달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폭으로 다른 사람인 척 해본다. 뒤통치를 들어 당신의 뒷모습을 찾는다.// 동물이나 산업보다 무서운 인간의 직립, 걸어 떠난 당신은 지금 지구 바깥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의 공포는 설명되지 않는다. 나는 변화가의 가나 사람을 껴안는다. 최초의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우리는 최대한의 보폭으로 살아왔고 여기에 이르렀다.// 나는 색이 다른 사람이 된다. 소리 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세로 여럿이 한꺼번에 고개를 돌린다. 나는 그들이 싫다 나보다도 더.

- 서효인, 『이태원』 전문¹⁸⁾

“외국인이 많은 변화가”(자본주의의 거리)에 홀로 남게 된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차이’, 즉 “색이 다른 인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한 의식은 ‘알 수 없음’에 의한 두려움을 촉발한다. 그런 점에서 이 “색이 다른 인간”은 ‘타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것(피부색)에 대한 공포 속에서, 화자는 자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타자들과의 조우 상황을 만든 “당신”을,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을 다시금 떠올린다. 그럼으로써 화자는 “당신”이, “두 발로 달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폭”으로 걷는 자신과 같이(동일성) “직립”하여 “걸어” 떠났음을 깨닫게 된다. 화자 자신이 지금 “최대한의 보폭”으로 걷는 이유는 이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당신”이 걸어 떠난 것 역시 모종의 상황으로부터의 도피, 한편으로 자신과 관계된 상황으로부터의 도피가 된다. 이러한 자각은 그때까지 공포

18) 서효인, 『여수』, 문학과지성사, 2017, 14~15면.

의 대상이었던 “색이 다른 인간”을 재고하게끔 유도한다. 정작 그에게 공포를 주었던 것은 타자가 아니라 “당신”의 ‘떠남’이었던 것이다. 동일성과 차이의 자리바꿈에서, “외국인”과 화자는 ‘인류’의 차원에서 서로 동일함이 밝혀지고, 더 나아가 그들은 “최초의 인류”가 된다. 화자인 ‘내’가 “번화가의 가나 사람을 꺼안는”, 그리고 “색이 다른 사람”이 된 이유는 여기 있다. 환희에 더한 일종의 경외심까지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체감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어디까지나 우연에 의탁할 따름인 데다 그와 같이 거리에서 획득된 서사는 본성상 일시적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면모를 타자가 알게 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줄 공산이 크다. 특히 자본의 도시에서 정보는 그 자체로 자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언제든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화자는 그들이 “나보다도 더” 싫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3. 메타적 글쓰기를 통한 헤테로토피아 구축과 관계의 윤리학

앞서 언급했듯이, 신체의 물리적 가까움은 무목적적 모둠 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으로 매우 중요하다. 물리적인 인접은 구성원들 간에 보다 원활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공감과 감정이입(신체)을 통한 주체의 의미적 상호 위치 지움, 즉 서사를 형성하는 데 일차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 유형에 대해 논할 수 있다. ㉠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나,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 사는(혹은 공통 목적으로 한 공간에 모인) 모둠 구성원의 관계 등이 해당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서사가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까움을 넘어 ‘함께 삶’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삶으로서 만들어진 지속적인 신체 매개적 인접은, 다음 시가 다루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 다른 이의 주체성 박탈—다른 ㉔, ㉕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포함한다.¹⁹⁾

이별하는 연인들은 말을 버리다가 말에게 버림받는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눈의 쾌락을 잊어버렸기에 현실 앞에서 과거를 조작한다. 거울이 평평한 것은 현실만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제 감정의 단어들만 알 뿐이다. (중략) 개새끼, 종로 3가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는 술 취한 연인을 바라보며 담배를 문다. 누가 누구를 먹고 누가 누구에게 먹히었던가? 말이 사라지면 나도 너도 그저 고기로 태어난 고기일 뿐이다. (중략) 의미가 멈추면 광기가 시작된다. 사랑을 나누던 모습 또한 그러했다.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나누었을까?

- 김안, 『사랑의 역사』 부분²⁰⁾

“말이 사라지면 나도 너도 그저 고기로 태어난 고기일 뿐이다.” ‘고기’는 ‘살’, 혹은 ‘식용’을 염두에 둔 살을 가리킨다. (전자의 의미에서) ‘인간은 살이 다’라는 명제는 문제적이다. 우리의 근본은 다름 아닌 물질이라는 사실, 그

19) 정신분석학 임상사인 사이토 다마키는 『엄마는 딸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저서를 통해, 모녀관계에서 신경증 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는 어떤 문제를 초래할까요? 아주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학대관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 지나치게 간섭하는 관계, 일관성 모녀관계 등등. (중략) 딸을 지배하는 어머니, 바로 이것이 모든 패턴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학대관계와 일관성 모녀 같은 관계의 경우 서로 크게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관계건 어머니의 능동성과 딸의 수동성이라는 조합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능동과 수동의 구분은 실제 행동 패턴보다는 ‘어느 쪽이 컨트롤하는 입장인가’라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토는 모녀관계에서 ‘어머니가 딸을 지배하는’, 즉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일이 잘 발생하는 이유를, 특히 모녀관계에서 공감과 감정이입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말하자면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차압하려는 시도를 알면서도 그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에 설불리 ‘어머니 죽이기’를 실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사이토 다마키, 『엄마는 딸의 인생을 지배한다』, 김재원 역, 꿈꾼문고, 2017, 47면 이하 참조.

20) 김안, 『미제레레』, 문예중앙, 2014, 21면.

앞에서 기존의 믿음은 재고된다. 우리의 ‘살’, ‘오몸’은 감각기관으로 포착되지 않고 언제나 그 범주를 넘어서는 ‘바깥’에 놓여 있으며 초과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이 믿는 ‘자아’나 ‘정신’ 등 환상에 의한 단일성을 스스로 해체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아도르노(T. W. Adorno)가 말한 바 있는 ‘이디오진크라지(Idiosynkrasie)’의 상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산호나 자동인형, 좀비 등, 죽음과 삶을 확정할 수 없는 이미지들에 의해 우리의 근원(“원시 상태”)이 환기되는 상태를 이른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개별 기관들이 주체의 지배로부터 다시 빠져 나가 생물학적인 근본 자극들에 자율적으로 순응”하며, 그렇게 “피부나 근육이나 사지가 경직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이는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²¹⁾

아울러 ‘살’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시에(신체의 공통성) 자신(자아)의 ‘바깥’이므로 근원적인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타인과 만나는 것, 그리고 관계 맺음은 ‘바깥’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느 방향으로 튕겨 나갈지 모르는, 불안과 가능성의 세계가 그때 뛰어 들어온다. 그 ‘순간들’은 위험하고 동시에 위대하다.”²²⁾ 기형도는 살과 정념의 세계에 대해 “불안과 가능성의 세계”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내부’를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위험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가까운 관계(가능성)는 성립될 수 없다. 위험한 만큼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광기”(「사랑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의 지평’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즉 인접한 신체를 매개로 한 상호 친화적 관계 맺기에 있어 중요한 ‘서사’의 형성에는, 김안의 시적 통찰이 보여주는 것처럼 일차적으로 “의미”의 멈춤을 지연시키는 작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윤리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고 또 타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누가 누구를 먹고 누가 누구에게 먹혔던가?”라는 질문을 넘

21)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공저,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역, 문학과지성사, 2001, 270면.

22) 기형도,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333면.

어-다시 말해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디까지나 다르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끊임없는 언어적 작용에 대한 요구다. “말을 버리”는 것은 그러한 언어적 수행과는 반대인 말의 운용 방식이며, 결국 “말에게 버림받”게 되어 인간은 식용 고기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언어(말)의 모든 운용 방식이 윤리적이지는 않다는 반론에 부딪힌다. 상기 시는 윤리적 입장을 재고하기 위한 메타적인 글쓰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글쓰기는 ‘수행’의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전환되어왔고, 실로 이러한 경향의 심화는 곧 윤리적 입장의 구축에 일조하기도 했다. 글쓰기를 수행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글쓰기를 일종의 ‘세계의 또 다른 판본(version) 만들기’, 특히 (독자와 함께) 탐색과 발견을 위한 ‘여행’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의지의 소산이다. 이는 글쓰기를 다른 공간적 구성과 나란히 놓을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절대화와 타자의 대상화를 지연시키는 방향이 동반된다면 일종의 ‘문학-정치’의 국면을 개시할 수 있게 한다. 즉 우리는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관계에서의)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타자와의 공존을 위한 사유 방식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이는 어느 한 편을 ‘선(先)’의 자리에 놓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언어와 사고는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다시 말해 사고는 언어를 운용하고 언어는 사고를 심화·확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낸다는 것이다. 레이코프(G. Lakoff)가 밝혔듯이, 특정한 단어나 문장은 특정한 틀(frame)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뇌에서의 활성화 경로와 그 정도를 물리적으로 강화한다.²³⁾ 따라서 텍스트를 통한 기호현상학적 유희는 통상적인 언어 사용 방식이 구축한 시공간 내용 전반을 해체하는 항상적(恒常的) 실험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여기서 ‘문학의 언어’와 ‘정치적 언어’가 구분된다.

23)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유나영 역, 삼인, 2006, 14~15면 참조.

문학의 언어가 정치적 언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문학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결락되어 있는 언어라는 것이다. 정치의 충만한 언어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어휘로써 모든 사태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설명하려 한다. 반면 문학의 결락된 언어는 그 결락으로서 말의 가능성들을, 그리고 말을 통한 세계의 가능성을, 무한정으로 개방하는 것이다.²⁴⁾

근대 이후 등장한 ‘서정시’는 ‘신체라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는 자아’라는, 절대화된 자아 개념으로 현실과의 불화를 읊는 글쓰기 양상이다. ‘현실과의 불화’, ‘현실로부터의 소외’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도시적 생활양식이 작용한다. 도시는 스펙터클(spectacle)을 강조·강화하는데, 적지 않은 시인들이 이러한 도시와 그 안의 건물들을 두고 ‘극장’이나 ‘광고탑’ 등으로 이해하기도 했다.²⁵⁾ 도시가 스펙터클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처음부터 자본주의의 ‘생산-소비’의 스크립트(script)를 실행하고 또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거대한 ‘전광판’으로서 기획된 것이기 때문이다.²⁶⁾ 다시 말해 도시 공간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물들, 특히 상품의 생산과 전시(展示, 보여주기→스펙터클)를 통한 소비의 흐름과 순환을 위해 설계된 장인 것이다. 이러한 스크립트의 실행에는 필연적으로 활발한 교통(交通)이 필요한데, 애초에 도시는 길과 길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

24) 정과리, 『문학과 정치 사이의 어떻게 - 점점 더 정치의 시녀가 되어가는 문학을 근심하며』, 『쑤』 제5호, 2017년 하권, 문학실험실, 2017, 62면.

25) 일레로, 김구용 시인은 시 『피로』에서 1950년대 도시의 거리를 극장과 같이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환상의 공간으로 묘사한다. 1950년대 한국의 도시는 전쟁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나 규모면에서 현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6) “오늘날의 건축은 특정하게 광고예술을 탁월하게 담아내는 훌륭한 광고탑의 구실을 해내고 있다. 한번 나가서 도시의 야경을 보라! 네온의 십자가와 번쩍이는 광고탑들로 도시는 끊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광고탑이 훨씬 거대하다. 현대의 모든 예술들이 다투어 광고의 이미지를 채택하고 그보다 더 광고는 예술, 문학, 정치, 경제, 철학 할 것 없이 자기식으로 소화해내고 있다.” 함성호, 『대중문화시대의 시』, 『안 이쁜 신부도 있나 뭐 - 키취세대의 시』, 세계사, 1992, 17~18면.

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²⁷⁾

이러한 ‘자본의 교류를 위한 교통의 장소’로서의 도시는 관계 속에서의 서사 만들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연성을 무한한 긍정성을 지닌 가치로 바꾸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작정 그것을 추구할 것을 강조·강요한다. 교통의 빈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자본주의의 스크립트는 그 빈도가 높아짐에 비례하여 발생한다-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우연은 한편으로 ‘예측 불가능’이며, 그것은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긴장의 원인이 된다.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이 대두되고 전자의 구축을 위한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이유, 그리고 관조를 위해 가상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도 이와 같은 맥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도시는 계속 열리고 그 안에 자리한 주택은 더욱 닫히는, 대립적 관계가 강화될 따름이다.

본래 주택은 닫히려고 하고 도시는 열려 있는 상태다. 옛날 주택들은 비교적 닫힌 마을을 상대로 적당히 열리고 적당히 닫혀 있었다. 이것을 이상적인 주택으로 보고 오늘날의 주택은 왜 도시와 이웃에 대하여 지나치게 닫혀 있냐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도시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도시 속에 사적인 요소가 강화된, 본래 닫혀 있는 주택이 들어앉으려니 더욱 닫힌 주택이 된 것이다.²⁸⁾

대도시에서의 거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촉발하는 사회적 요인에 (뇌가) 더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²⁹⁾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그리고 상호 무작위적으로 가깝게 대면하는 상황은 진화사적으로 볼 때 결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며, 한편으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한 스

27) 김광현, 『도시와 풍경』, 안그라픽스, 2018, 37면.

28) 김광현, 『거주하는 장소』, 안그라픽스, 2018, 119면.

29) Allison Abbott, “Urban Decay”, *Nature* vol.490, Macmillan Publishers Ltd, 2012, pp.162~164.

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생활양식으로의 이행은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방식을 형성해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의 삶은 기존 공동체와 같이 구성원이 서로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집단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명실상부 ‘각자의 삶’이 된다. ‘사생활’, ‘신뢰’ 등의 개념이 현대에 보다 중요해진 이유는 이러한 맥락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대 도시의 삶에서 ‘가족’과 ‘가정’은 무목적적 모듬,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 등으로 개념화된다. 그러나 그러한 가족과 가정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실 ‘가족’과 ‘가정’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다만 그곳은 ‘바깥’ 세상과 다르다는—실은 달라야 한다는 요구에 의한 것인—말로 언어적 노력에 의한 서사 구축의 필요성이 은폐, 혹은 억압되어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든 회귀하고 만다는 정신분석의 통찰에 맞게, 그러한 은폐와 억압 작용의 근본과 실상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유사성에의 확인을 비롯하여, 함께 살을 맞대고 생활함으로써 얻은 구성원들의 많은 정보들과 그로 인해 형성된 감정이입의 장은 친함의 상태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바로 그 정도만큼 반대로 서로를 구속하거나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심지어 그러한 감정이입과 공감으로 인해 동질성을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그와 같은 문제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³⁰⁾ 김혜순이 자신의 “몸 속에”, “아버지가 심어준”, “나무 한 그루”가 있음을, 또 그 나무를 따라 자신의 “붉은 피는 그 길로만 흐른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하는 것(“아버지, 내 몸에서 나와주세요”)도 이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30) 이에 관해서는 앞서의 각주에서 논급한 사이트 다마키의 책을 참조.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 속에 나무 한 그루 있다는 거/ 대변에 알 수 있다/ 잎맥처럼 가는 흠이 손바닥을 비집고/ 이리저리 흐르고 있다/ 아버지가 심어준 나무일까/ 나는 아버지와 손금이 닮았다/ 나는 두 장의 나뭇잎 같은 손바닥을 맞대고 기도 드린다/ 아버지, 내 몸에서 나와주세요 (중략) 나는 나의 그림자 속에 심겨진 한 그루 나무/ 어딜 가든 내 그림자의 영양분을 받고/ 내 몸 위로 뻗쳐 올라간 줄기들이/ 내 손아귀를 가득 움켜쥐고 있다/ 내 두개골을 가득 감싸고 있다/ 나의 붉은 피는 그 길로만 흐른다

- 김혜순, 『나는 나의 그림자 속에 심겨진 한 그루 나무』 부분³¹⁾

그러나 서정시는 앞서 언급한 서사 구축의 조건을 만들어줄 수 없다. 서정시는, 특히 한국의 서정시를 말하자면, 현실과의 불화와 소외로부터 시작하여 ‘자연과의 동화’로 쉽게 이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정시는 철저하게 모더니티의, 도시적 삶의 산물이다. 그것은 현대 도시의 삶이 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치유’의 방법론으로 등장한 것이다. “서정은 만상(萬象)을 일인칭의 내면적 고도(高度)에 걸어두는 방식”³²⁾이라고 한 이장욱의 말은 이러한 서정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 처음에 서정시는 자연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노래했다. 자연은 현실(도시)의 대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자연에 관해 알아낸 정보들이 점차 많아질수록 서정시는 ‘자연과의 동화’로 이행해갔다. 물론 이것이 정말 ‘동화’일 수는 없다. ‘자연’은 인간의 도구적 합리성에 포착되지 않는 자연, 마냥 ‘아름답다’고만, ‘정결하다’고만 할 수 없는 ‘바깥’의 또 다른 자연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정시에 의해 결국 남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절대적 자아뿐이다. 불화와 갈등은 억지로 봉합되고 불안과 소외는 정신을 통해 은폐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적 태도는 폭력이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과 동일하다. 분명히 언어는 긴장을 생명의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31) 김혜순,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문학과지성사, 2000, 71~72면.

32) 이장욱, 『꽃들은 세상을 버리고 : 다른 서정들』, 『창작과비평』, 2005년 여름호, 창작과비평사, 2005, 70면.

“위협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결과 자체를 규명하고, 그 의도를 언명할 수 있”음은,³³⁾ 우리를 과도한 긴장으로부터 보호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언어의 기능을 최대치로 실현하는 서정시의 세계 만들기는 세계에 대한 근대인의 적절한 반응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있어서 결코 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글쓰기 수행은 앞서 언급했던 균질화와 동화를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자아의 절대화, 상존하는 불안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공과 사의 철저한 구분, 그리고 이에 따른 공간의 과도한 분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개념상으로 도시의 공간은 균질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공간이든 “순백의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듯,³⁴⁾ 실제 도시 공간 역시 결코 균질하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교환’과 ‘거래’가 가능하려면 (임의적으로 분할된) 공간들 간 가치는 서로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모든 것에 대한 균질화·균등화를 지향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듯해 보이는 도시는, 오히려 끊임없이 구분하고 배제해야만 교환과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다.

이렇듯 다른 지역과 절대적 차이를 갖는 장소를 푸코(M. Foucault)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라고 불렀다. “현실화된 유토피아”,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들”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공간은,³⁵⁾ “모든 공간 바깥에 놓여 타자가 되어버린 공간, 거부당함으로써 현실을 투영하는 공간”이 되므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여 드러낼 수 있다.³⁶⁾ 푸코는 「다른 장소들」이라는 짧은 글에서 헤테로토피아에 해당하는 장소로 박물관, 도서관, 오리엔트 정원, 테마파크, 식민지, 매음굴, 배 등을 거론했는데, ‘다름’과 그에 대한 언술이 가진 효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현대 시인들이 이러한 장소를 시화한 것 역시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할 수

33) 파커 J. 파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역, 글항아리, 2012, 145면.

34)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12면.

35) 위의 책, 47면.

36) 김광현,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 - 건축강의 2』, 안그라픽스, 2018, 179~280면 참조.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포칼립스(Apocalypse)와 좀비(zombie), 전염병 등의 요소들을 단독,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을 생성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공간에의 거론을 통해 그동안 인식되지 않았던 ‘몸’, 즉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될 수 없는 존재의 근원인 신체가 의식에 회귀한다는 점이다.

거리에서 나는 구체관절인형처럼 우울하다. 거리에서 나는 전염병 환자처럼 우울하다. 거리에서 나는 바퀴벌레처럼 우울하다. 나는 벌레처럼 기어서 허름한 나만의 아파트로 돌아온다. 나는 문을 잠그는 것을 잊지 않는다.// 나는 ‘푸른색 장마’가 묻은 옷들을 벗어던지면서 가스레인지 앞으로 간다. 재스민차가 끓는 소리를 듣는다. 따뜻한 소리다. 따뜻하고 노란 소리가 집 안에 퍼진다. 라디오에선 연일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뿐이다./ ‘정부는 쓰레기 수거를 중단했습니다.’/ ‘부득이 정부는 단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소개령(疏開令)을 내렸습니다.’/ ‘독감 증세를 보이다가 벌레처럼 변해 죽는다고…….’// 벽지가 녹록해진다. 누수가 시작되었다. (중략) 냄새나는 이불이 엉클어져 있다. 침대는 젖었지만 나는 침대로 기어든다. 뇌수를 쫓는 빗소리를 건디며 나는 뒤척인다.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오지만 나는 참는다. 베란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 장이지, 『권야(倦夜) - 차이밍량 감독의 영화 『구멍』(1998)에 부쳐』 부분³⁷⁾

위의 시는 차이밍량(蔡明亮) 감독의 영화 <구멍>에 대한 상호 텍스트적 관계에 있는 작품이다. 영화 <구멍>은 그러한 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떠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위층 남자와 아래층 여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이다. 누수가 발생하고 바닥(여자의 입장에서는 천장)이 뚫리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공감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영화는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특히 마지막은 끝내 전염병에 걸리고 만 여자를 남자가 뚫린 구멍을 통해 위층 자신의 집으로 끌어올리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는

37) 장이지, 『안국동울음상점』, 문예중앙, 2007, 24~25면.

다소 판타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대한, 충분히 재고할 만한 형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장이지의 시는 그러한 결론이 갖는 판타지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염병이 돌아 외부로부터 고립된 영화 속의 상황을 공유하는 이 시에서, 화자는 “구체관절인형처럼”, “전염병 환자처럼”, 그리고 (전염병을 옮기는 것으로 등장하는) “바퀴벌레처럼” 우울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영화에서처럼 타인과 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누수를 고치러 배관공이 오지만, 화자의 “비싸게 군다”는 말이 가리키듯, 서로가 경제적 이해타산의 관계에 그칠 뿐이다. 결국 그는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오지만” 참으며 끝내 쓸쓸하게 죽어갈 것이다. 이 시는 관계 맺음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도시의 헤테로토피아적 면모를 미적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냄으로써 윤리적 담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헤테로토피아적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메타적 방식의 현실비판으로 자리매김한다. 신체를 통한 공감과 감정이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고 또 타자를 대상화하지도 않는 지속적인 언어적 수행, 다시 말해 유사성의 발견으로 인한 동질감 형성에도 이질성을 동시에 깨달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공유하는 장인 것이다.

여기서 로티(R. Rorty)의 ‘아이러니스트(ironist)’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태도는 아이러니스트, 또한 그의 언어적 수행이다. 그가 말하는 아이러니스트는 ‘문예비평(literary criticism)’을³⁸⁾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최종 어휘’, ‘최후의 믿음’까지도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³⁹⁾ 문예비평은 ‘참신한’ 은유나 어휘의 창안, 그리고 더 나아가 서사

38) 김동식은 로티가 말하는 ‘문예비평’이 ‘문학비평’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언어활동에 대해 그것이 지닌 실용주의적인 현금가치, 특히 비유적인 파위의 측면과 그것에 연관된 것들을 다루는 하나의 장르”라고 평가한다. 김동식, 『로티의 신실용주의』, 철학과학사, 1994, 395면.

짓기와 관련되어 있는데,⁴⁰⁾ 참신한 은유는 말해지는 사태를 다각도로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운용하는 자를 끊임없이 스스로 재서술하게 함으로써 독단을 지양하는 새로운 자아 만들거나 새로운 세계 만들기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해나갈 수 있게 한다. 또한 미적 설득력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도 용이하다.⁴¹⁾ 이렇듯 로티가 현대를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 중요하게 언급하는 아이러니스트의 일례로, 한 사람에 대한 자신의 ‘최후의 믿음’까지도 대화의 과정에서 언제든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시화한 김언의 텍스트를 들 수 있다.

이 모습과 저 모습을 겹쳐놓으면 한 사람이 된다./ 저 모습과 다른 모습을 겹쳐놓아도 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을 겹치면서/ 나는 한 사람이다.// 나는 한 사람을 안다. 그의 모습을 알고/ 그의 다른 모습을 알고 그 또한 그라는 걸 알고/ 손을 내민다. 언제든지/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손을 내밀다가 멈추었다. 다른 사람이란 걸 확인하고/ 다른 모습을 떠올리다가 마저 내밀었다./ 손은 다른 사람과 인사하고 있다./ 손은 다른 모습과 악수하고 있다.// 그제 한 사람이란 걸 알 때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 흘렀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갔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는 나의 모습을 의이해할 것이다./ 나는 그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어쨌든 한 사람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고개를 가로절다가// 미처 못 챙겨 온 나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잠들었다. 한 사람이 자고 있다./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다./ 잠자는 모습도 그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이 자고 있다./ 나의 한평생 동반자라는 사람이/ 방금 전까지 누워 있다가 나갔다./ 내가 잠든 모습을 보고

- 김언, 『모습』 전문⁴²⁾

“모습”은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일종의 겉모습)과 행동, 그리고

39) Richard Rorty,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xv.

40) *ibid.* p.101.

41) 김동식, 앞의 책, 404~405면 참조.

42) 김언, 『한 문장』, 문학과학지성사, 2018, 64~65면.

그에 결부되어 있는 마음(혹은 의식) 등이 겹쳐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는 “이 모습과 저 모습”이 겹쳐진—일종의 투명한 유리판들이 겹쳐진 형태와 같은—‘다층적 레이어(multiple layer)’의 복합체(complex)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위치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의’ 그림이지만, 어디까지나 서로 다른 그림들이 ‘겹쳐져서 하나가 된’ 그림이다. 이러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은 곧 ‘여러 사람’이고, 그 ‘여럿’은 다시 ‘하나’라는 논리가 성립된다.⁴³⁾

따라서 여기서 ‘하나’는 개수가 아니라 ‘동일성’을 뜻한다. 동일성은 실체를 전제한다. 그러나 과연 세계에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미시적으로 들여다볼수록, 그리고 ‘관계’와 ‘영향’의 층위에서 세계와 인간을 바라볼수록 실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고해진다. 이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상에서 보통 ‘나’는 직접 의식의 확실성을 근거로 들어 스스로 동일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는 생각과 존재를 상호 관련시킴으로써 당시 부상하는 ‘개인의 신화’라는 시대적 욕망에 성공적으로 부합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여러 철학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듯, 형식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사고 및 존재의 확실성과 ‘자아’의 동일성을 의도적으로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일단의 ‘진실’을 전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누구도 몇 개의 문장으로, 몇 개의 이미지로 정의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상존해있다. 이것이 곧 몸과 몸을 둘러싼 진실이며, 이를 끊임없이 다시 읽는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는 윤리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3) 이를 페르소나(persona)로 이해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것은 ‘가상/본질’이라는 이분법을 전제로 삼을 때 성립되는 해석이다. ‘페르소나’는 하나의 자아가 그와는 다른 자아를 흉내 내는, 혹은 재현하는 일종의 ‘역할 놀이’를 가리킨다.

4. 결론

본 연구는 근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족’, 즉 ‘무목적적 모둠’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러한 모둠을 이루는 관계의 면면에 ‘인접성’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최근 시인들의 시 텍스트를 살펴보았다. 인접성은 ‘가까움’과 그 정도를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공간’의 문제를 포함한다. 흔히 ‘관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사랑’, ‘관심’, ‘친(親)함’, ‘정(情)’ 등은 공간적인 가까움/땀의 원리가 작용하는 문제이다. 인접성은 또한 ‘연결’과 ‘접속’과도 관련된다. 존재는 근본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같이 물리적 공간을 함께 점유하는 접촉이 없는 관계 맺음은 형이상학적 자이를 강화할 뿐,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는 유토피아를 끊임없이 실제화하려는 시도에서 헤테로토피아가 억압되고, 그럼으로써 존재의 면모가 단순화되어 일방적 관계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맥락에 저항하는 주체는 ‘살’의 감각에 민감해지는데, 이는 직접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량을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감정이입과 공감, 그리고 이질성에의 직관 등이 더 잘 이루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더 나아가 윤리성까지도 담보하는 태도가 되기도 하기에, 결론적으로 인접성의 확보는 관계 맺음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시를 통해 다룬 것처럼, 이는 어디까지나 ‘메타적인 언어적 작용’이 동반된 주체의 참여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때 이른바 서사가 창안되고 그로써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하여, 결과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함께 삶’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기형도,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 김 안, 『미제레레』, 문예중앙, 2014.
- 김 언, 『한 문장』, 문학과지성사, 2018.
- 김하늘, 『삼토마토』, 파란, 2016.
- 김혜순,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문학과지성사, 2000.
- 장이지, 『안국동울음상점』, 문예중앙, 2007.
- 서효인, 『여수』, 문학과지성사, 2017.
- 함성호, 『대중문화시대의 시』, 『안 이쁜 신부도 있나 뭐 - 키취세대의 시』, 세계사, 1992.

2. 국내 저서 및 논문

- 김광현, 『거주하는 장소』, 안그라픽스, 2018.
- 김광현, 『도시와 풍경』, 안그라픽스, 2018.
- 김광현,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 - 건축강의 2』, 안그라픽스, 2018.
- 김동식, 『로티의 신실용주의』, 철학과현실사, 1994.
-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 박준상, 『떨림과 열림 - 몸·음악·언어에 대한 시론』, 자음과모음, 2015.
- _____, 『인터넷 문화와 타인과의 관계』, 『초개인화시대, 가능한 공동체와 한국 비평 담론의 성찰 - 2019년도 한국비평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019. 11. 22.).
- 브루스 골드스타인, 『인지심리학』, 도경수 외 역, 센케이저러닝코리아, 2016.
- 사이토 다마키, 『엄마는 딸의 인생을 지배한다』, 김재원 역, 꿈꾼문고, 2017.
- 알바 노에, 『뇌과학의 함정』, 김미선 역, 갈리온, 2009.
- 애슐리 몬터규, 『터칭』, 최로미 역, 글항아리, 2017.
- 이장욱, 『꽃들은 세상을 버리고 : 다른 서정들』, 『창작과비평』, 2005년 여름호, 창작과비평사, 2005.
- 이종관, 『공간의 현상학, 풍경 그리고 건축』,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 전종한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개정3판), 사회평론, 2018(초판: 2005).
- 정과리, 『문학과 정치 사이의 어떻게 - 점점 더 정치의 시녀가 되어가는 문학을 근심

하며, 『숲』 제5호, 2017년 하권, 문학실험실, 2017.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갈무리, 2015.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유나영 역, 삼인, 2006.

파커 J. 파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역, 글항아리, 2012.

3. 국외 논문 및 저서

Abbott, Allison. "Urban Decay". *Nature* vol.490. Macmillan Publishers Ltd, 2012.

Rorty, Richard.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Abstract

Study of Adjacency as Relational Principle

- Focusing on Recent Korean Contemporary Poems -

Kim, Chung-Woo*

This study started with 'family', which is the object of interest, 'group without purpose.' Thus, the premise of 'adjacency' mechanisms on the face of such a group relationship was examined. Adjacency means 'close' and to the extent that it inevitably involves the problem of 'space.' The conceptual words often mentioned in 'relationship' work on the principle of spatial 'near / far.' Adjacency is also related to 'connection.' Because human beings are fundamentally interdependent. However, forming a relationship without a contact that occupies physical space together, such as the Internet, only strengthens the metaphysical self and cannot form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It is as if the heterotopia is suppressed in an attempt to constantly actualize the utopia, thereby simplifying the aspect of existence and becoming a unilateral relationship. Subjects who resist this context become sensitive to the sense of "flesh." This is because interactions through direct contact communicate a relatively larger amount of information, thereby making empathy and intuition to heterogeneity better. Therefore, empathy through adjacency acts as a very important mechanism for establishing relationships. Furthermore, securing closeness can be an attitude that can secure ethics. However,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this is only possible when there is a subject's participation accompanied by the use of meta-language. This is because so-called narratives can be created 'life together' can continue.

Key Words : family, relationship, adjacency, space, body, empathy, heterotopia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필자소개>

이름: 김청우

소속: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 eeonion@gmail.com

논문투고일: 2020년 2월 4일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25일

